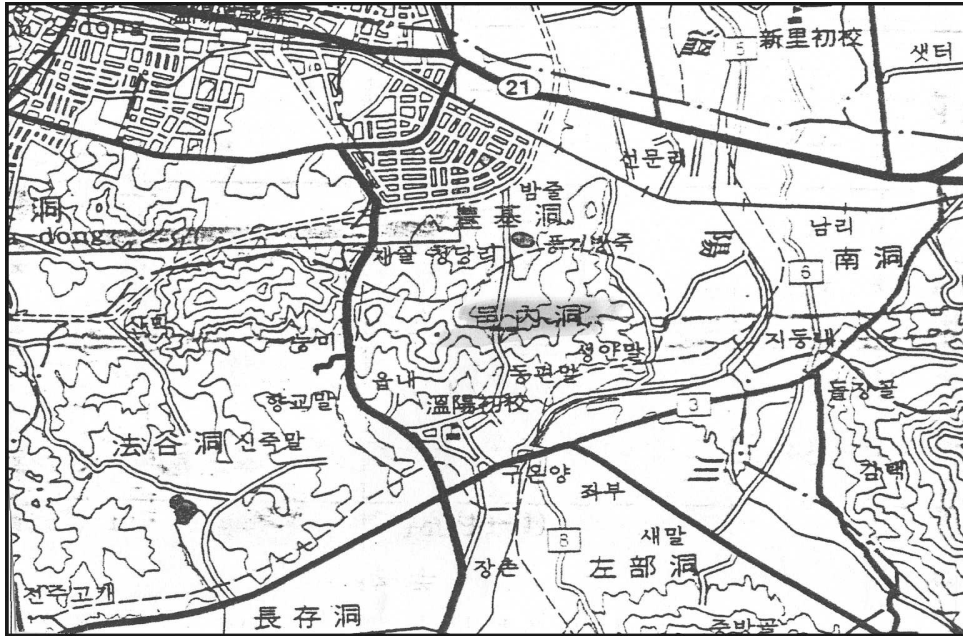


(1) 읍내동 《 읍내 1통 ~ 읍내 6통 》

<읍내동 전체 위치도>



<조사당시 읍내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본래 온양군 읍내면에 온양군이 있었으므로 읍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압에 따라 경전, 송정리, 동변리, 유기리, 상리, 중리, 하리, 성내리를 병합하여 읍내동이라 하였다.

읍내 2통은 장벌=읍내2구 읍내 2통으로써 장벌, 쇠전거리, 섬말, 동헌말이 있는 마을로, 온양 관아가 있을 당시 주기적인 장이 섰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읍내3통은 성안 말-읍내3구-읍내3통으로 변했으며 마을 앞산에 성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성터 앞에 있는 마을이라 성앞 말이라 함. 옆에 외딴 가옥 장군배와 함께 읍내 3통에 속한다.

읍내 4통은 읍내 1통 206번지에 1994년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하여 읍내 4통으로 편제되었고 읍내 주공아파트로 불린다.

－ 통별 인구분포

읍내동의 총 인구는 4,004명이며 통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마 을 명	계	남자	여자
읍내 1통(읍내리)	539명	287명	252명
읍내 2통(읍내리)	261명	134명	127명
읍내 3통(성안말)	127명	65명	62명
읍내 4통	716명	344명	372명
읍내 5통	978명	458명	520명
읍내 6통	1,383명	684명	699명

－ 통별 가구수

읍내동에는 총 1,589가구가 주거하고 있으며 농가는 136가구이고 비농가가 1,420가구로 통별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구 분 마 을 명	계	농가	비농가
읍내 1통(읍내리)	172가구	75가구	97가구
읍내 2통(읍내리)	88가구	46가구	42가구
읍내 3통(성안말)	38가구	27가구	11가구
읍내 4통	308가구	3가구	305가구
읍내 5통	417가구	7가구	410가구
읍내 6통	566가구	11가구	555가구

－ 통별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읍내 1통(읍내리)	100%	44%	56%
읍내 2통(읍내리)	100%	52%	48%
읍내 3통(성안말)	100%	71%	29%
읍내 4통	100%	0.9%	99.1%
읍내 5통	100%	1%	99%
읍내 6통	100%	2%	98%

－ 통별 농경지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기타
읍내 1통(읍내리)	20ha	9ha	11ha	－
읍내 2통(읍내리)	15ha	7ha	7.8ha	0.2ha
읍내 3통(성안말)	20.3ha	9ha	11.3ha	－
읍내 4통	－	－	－	－
읍내 5통	－	－	－	－
읍내 6통	－	－	－	－

－ 통별 농기계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읍내 1통(읍내리)	7대	2대	8대	12대	12대	3대	－
읍내 2통(읍내리)	12대	4대	2대	4대	16대	5대	1대
읍내 3통(성안말)	10대	2대	2대	4대	13대	3대	1대
읍내 4통	－	－	－	－	－	－	－
읍내 5통	－	－	－	－	－	－	－
읍내 6통	－	－	－	－	－	－	－

－ 통별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읍내 1통(읍내리)	1 개소	1조	1조	－	1조
읍내 2통(읍내리)	1 개소	1조	1조	－	－
읍내 3통(성안말)	1 개소	1조	1조	－	－
읍내 4통	1 개소	1조	1조	－	－
읍내 5통	1 개소	1조	1조	－	－
읍내 6통	1 개소	1조	1조	－	－

－ 통별 고령자

읍내 1통 최고령자는 102세 여자(성명미상) ‘복돌엄마’라고 불린다.

읍내 2통 최고령자는 서오연 할머니(100세, 여)이다.

읍내 3통은 서상철 할아버지(81세)이다.

읍내 4통 ~ 6통은 APT단지로 유동이 심하여 고령자 가리기가 어렵다.

－ 통별 호당 소득

읍내 1통은 150만원, 2통은 100만원, 3통은 50만원이다.

읍내 4통 ~ 6통은 APT 단지로 전입유동이 심하여 입주 세대별 소득 집계가 어렵다.

－ 통별 사진

<읍내 1통>



온양으로 들어오는 경우 도로 우측에 위치

온양 향교, 농협, 동헌이 위치

<읍내 2통>



읍내 1통과 접해 있으며 온양초등학교 정문에 위치
동 : 좌부동 · 서 : 법곡 1통 · 남 : 송악면이 위치

<읍내 3통>



읍내 2통에서 동쪽 고개 너머에 위치
동 : 남동 · 서 : 풍기 2통 · 북 : 풍기 3통이 위치

<읍내 4·5·6통>



읍내 1통의 위쪽 고개에 세워진 읍내주공아파트가 위치
 읍내 4통 : 101동·102동, 읍내 5통 : 103동·104동
 읍내 6통 : 105동·106동·107동이 속함

- 지명

·객사(客舍) 【고적】 읍내동에 있는 온양군의 객사. 현재 온양초등학교가 됨.



·경전 - 리(京前里) 【마을】 → 장군배.

·교촌(校村) 【마을】 → 향교말.

·길청 - 터 【터】 온주아문 옆에 있는 길청의 터.

·당간 - 지주(幢竿支柱) 【고적】 → 짐대.

·당산(黨山)[연산] 【산】 읍내 뒤에 있는 산.

① 산제당을 모시었음.

② 제비의 모양과 같다 함.

·동변 - 리(東邊里) 【마을】 → 동편말.(3통)

·동편 - 말[동변리] 【마을】 온주아문 동쪽에 있는 마을.(3통)





·동헌(東軒) 【고적】 객사 서북쪽에 있는 온양군의 동헌.

옛날에는 온양경찰서 읍내 파출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동헌 앞에 온주아문이 있음.

·뫼 - 산 【산】 → 성재

·바깥 - 장별 【마을】 → 장터 바깥쪽에 있는 마을

·비석 - 거리 【길】 → 온주아문 앞에 있는 거리

각처에 흩어져 있는 비를 한데 모아 세웠는데

군수 박수제(朴需濟), 윤지대(尹志大), 이응우(李應愚),

이병교(李秉敎), 홍우룡(洪祐龍), 관찰사 박제관(朴齊貫)의 선정비가 있음.

·사직단 - 터(社稷壇一) 【터】 읍내 서쪽에 있던 온양군의 사직단 터.

·성내 - 리(城內里) 【마을】 → 성안말.(3통)

·성안 - 말[성내리] 【마을】 성재 안쪽에 있는 마을.(3통)

·성 - 재[뫼산] 【산】 당산 동쪽 줄기에 솟은 산.

석성(石城)인데 많이 헐어서 흔적이 겨우 남아 있을 정도임.

·성황사 - 터(城隍祠一) 【터】 연산에 있는 온양군의 성황사의 터.

고려 고종 23년(1236)에 몽고 군사들이 온양읍에 침입할 때, 아진 현창(玄昌)등이 문을 열고 싸워서 적병200여명을 죽이고 병기를 많이 노획하였는데 고종은 이 싸움에 이긴 것은 성황당의 도움이라 여겨 성황당을 성황사로 봉하엿음.

·연산(燕山) 【산】 → 당산.

·옥 - 골 【마을】 옥터가 있는 마을.

·옥 - 터 【터】 장터우물 뒤에 있는 온양옥의 터. 현재 집이 되었음.

·온양정씨시조 - 제단비(溫陽鄭氏始祖祭壇碑) 【비】 장군배에 있는 온양 정씨 시조의 제단비. 1947년에 세움.

·온양 - 향교(溫陽鄕校) 【고적】 향교 말에 있는 온양 향교.

·온주 - 아문(溫州衙門) 【고적】 동헌 앞에 있는 전 온양군의 삼문인 온주 아문.

이층으로 되었는데 고종 8년에 증건됨.



·유기 - 리(柳器里)【마을】→ 피촌말.

·읍내【마을】→ 읍내동.

·이봉 - 골목【마을】성재 밑에 있는 마을. 덕수 이씨의 이봉이란 사람이 살았음.

·장군 - 배[경진리]【마을】동편말 아래에 있는 마을. 장군바위가 있었음.

·장방 - 터【터】길청터 옆에 있는 온양군의 장방의 터.

·장 - 터【마을】객사 앞쪽에 있는 마을.

전에 장이 섰었는데 1914년 온양군이 없어짐에 따라 당시 온천리로 옮겨갔음.

·장터 - 우물【우물】장터 앞에 있는 우물.

·정씨 - 정문(鄭氏旌門)【정문】평긋재 모퉁이에 있는 정씨의 효자 정문.

·짐 - 대[당간지주]【고적】향교말 아래 큰 길가 연못 옆에 있는 짐대.

높이2m 가량 되는데 현재 논 귀퉁이에 서 있음.

·짐대 - 거리【길】짐대가 있는 거리.

·짐대거리 - 샘【우물】짐대거리에 있는 우물.

·피촌 - 말[유기리]【마을】바깥장벌에 있는 마을.

·평긋 - 재【재】평긋재.

·평긋 - 재[평긋재]【산】읍내동 남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 옛날 빙고가 있었음.

·하마 - 비(下馬碑)【비】온양향교 앞에 있는 대소인원(大小人員) 하마비.

·향교 - 말[교촌]【마을】읍내리에 있는 온양향교가 있는 마을.

·공 해 - 공해란 옛 군청사를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공해로는 구온양 군청사 30평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전일의 읍내 파출소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다.

조선 고종 8년(1871) 3월에 건립한 이 건물은 순 한국식 기와집인데 당시 무엇으로 사용하던 건물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날 공해는 그 규모가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다음과 같은 부속 건물을 갖추고 군 행정을 수행 했었다고 한다.

군수가 공사를 처리하는 동헌을 비롯해서 군수의 관사인 내아, 행정, 좌 수, 별감의 집무하던 향청, 호장이 집무하던 작청, 회계 사무를 처리하던 공수청군의 장교가 근무하던 장청, 경찰 및 검찰행정을 담당, 처리하던 형방 청, 노복들이 쓰던 관노청, 죄인들을 가두는 형옥등이 있었다.

옛 온양군의 공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매우 간략하게만 남아있다.

·동헌 : 10간 아사 : 23간

·근민당 : - 각사 : 37간

·무학당 : 3간 향청 : 12간

·객관 : - 온주아문.

- 전설

● 연산과 성황사

연산(당산)에는 토성으로 된 성터가 약 400m정도 남아 있는데 서편에는 일월성신과 자연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사진단 터가, 남서쪽 언덕에는 일찍이 빙고로 사용 하였던 평곳재의 잔흔이 남아 있다. 현 온양초등학교 터는 온천동으로 시장이 옮겨가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장이 섰다고 한다. 그 터는 예전 주민들의 시장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고려 고종 23년(1236년)에 몽고군의 3차 침입 때 몽고군이 온수군을 공략하므로 온수군의 아전인 현려가 출전하여 적병 200여명을 죽이고 많은 병기를 빼앗았는데 고종이 이때에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연산에 있는 성황당에 도움으로 여겨 성황당을 성황사로 봉하였다 한다.

● 온양향교의 유래

온양향교는 조선조 태조 때 국민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전국 부·군·현에 향교를 설립하는 동기가 되어 온양 능미(지금의 온양시 법곡동)에 온양향교를 세웠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운하게도 이 향교가 불에 타 없어져 광해군 2년(1610) 봄 지금의 위치에 다시 짓게 되었고 몇 번의 증건과 보수를 거쳐 온양교육사의 산 증인으로 오늘의 모습을 간직하게 된 것이다.

① 향교란

향교란 지방에 있는 문묘와 여기에 부속된 옛날의 공립학교로, 일명 교궁·재궁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의 학제를 보면 중국 당나라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는 국자감, 동서학당을 두었고, 지방에는 국자감을 축소한 학교를 설치하였는데 1127년(인종5년) 3월에 제주에 학을 세워 널리 도를 가르치라는 조서를 내림으로써 지방교육 기관으로서 향교의 시작을 엿볼 수 있다. 이어 조선조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1392년(태조 1년)에 팔도의 안찰사 즉 지방장관에 명하여 지방 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를 더욱 발전시켜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케 하였다.

유생의 수는 부나 목에는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정원을 정하고, 교수 1명(종6품), 훈도 1명(종9품), 학장이 있고 교예가 있었다.

향교는 현대와 같이 그 학제가 일정하지 않아 각 고을마다의 차이를 알 수 있으나, 중앙(서울)에 설치한 사학과 같이 이 향교에서 배운 후 1차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생원·진사 자격을 얻어 신분의 영예를 누렸으며, 다시 성균관에 진학할 자격을 얻어 대과(문과라고도 함)를 치를 자격을 얻었다.

② 향교의 주요 교과목

교과목에는 유학의 경전인 사서(사서 :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리고 오경(오경 :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등이 있고 소학을 처음 배웠다. 그 외에 향교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사록, 제사, 여씨향약, 정속이륜행실 등을 주로 가르쳤다.

③ 기타 행사활동

우선 춘·추로 두 번 제사(석전)가 있으나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씨름활동이라 할 수 있는 향음주례, 향사례, 양노례, 계몽강습회 등 연중행사로 지방문화 교육이 있었다.

④ 향교재산

향교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려시대부터(고려 성종 11년) 국자감에 전장을 나라에서 지급하던 것이 유래가 되어, 지방 향교에도 토지를 주어 경비를 쓰게 하였는데, 조선조 때도 대체로 고려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운영하였으며 영조 때에는 학전의 결수를 규정(국고보조)하여 성균관에는 4백결, 사학에는 10결, 주·부의 향교에는 7결, 군·현의 향교에는 5결을 주어 운영케 하였는데, 향교에는 결수가 적어 지방 유지로부터 지금의 교육세 비슷한 것을 징수하기도 하고, 유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축적된 향교 재산으로 운영하였다.

이상으로 지방교육기관인 향교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향교의 현대의 학교 교육 목표와 같이 바람직한 인간 형성의 도장이라기보다는 과거를 치루기 위한 즉, 훌륭한 양반이 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며 조선조 중세에 이르러서는 향교와 같은 교육목적의 지닌 서원이 곳곳에 세워짐에 따라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되어 다만 문묘의 전통으로서의 사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읍내 1통은 노후 된 마을 회관을 2층 복지 회관으로 개축하고 부녀회와 청년회는 기금을 조성하여 경로잔치 및 효도 관광을 년 1회 실시한다.

읍내 2통은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여 2층으로 개축하고 조경사업을 매월 2회 실시하고 마을을 대청소하고, 다목적 마을광장을 조성하여 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읍내 3통은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고 마을 입구에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월 2회에 걸쳐 마을길 제초작업과 마을 미화 작업을 한다.

읍내 4통은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주 2회 재활용 수집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 효도 관광 및 경로잔치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읍내 5통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1회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점심식사 제공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특기사항

읍내동의 문화유적으로는 온양향교, 온양군 관아와 동헌 및 동헌 앞에 있는 전 온양군의 삼문인 온주아문, 당간지주 등 많은 유적이 있다.

읍내 1통은 옛날관아(지금의 시청)가 있던 마을로서 향교, 당간지주, 온주아문이 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당간지주와 도지정 유형 문화재인 온주아문 온양 향교를 소개 한다. 그리고 읍내3통에 위치한 성안말 산성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간지주>



● 당간지주

당간지주는 당간을 쏙는 기둥이란 뜻이다. 당이란 절의 문 앞에 쏙는 일종으로 속칭 괘불이라고 한다. 그 면에 불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당간에 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항상 달아두는 것은 아니고 기도나 법회 등 특별한 불교의식이 있을 때에만 사용 되었다. 당산은 당을 세우기 위하여 2개의 받침대를 세우고 그 가운데 세우는 기둥으로, 당산을 받치기 위하여 상하에 2개의 구멍을 뚫었다. 당간의 재료로는 돌, 쇠, 나무 등이 있다. 당간지주는 신라시대에 유래하여 고려시대에 걸쳐 성행하였다.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 석당간은 고려시대 건조한 전남 나주의 동문밖에 있다. 그리고 철당간으로는 고려시대 건조된 충북 청주시 용두사의 당간, 통일신라시대의 공주 감사의 철당간 등이 유명하며, 목당간은 대부분 없어지고 당간지주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온양의 당간지주는 온양향교 아래, 큰 길가, 지금은 매몰되어 없어진 연못 옆에 있다. 화강암으로 된 이 석주는 세워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당간이 성행하였던 고려 초인 10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간지주가 위치한 곳은 석탑재를 비롯한 다른 유적 유물이 많이 남아 있고, 산세 등 주변 정황으로 보아 사지로 추측되며 이 지주의 위치는 본래의 자리인 것 같다. 양지주는 동서로 상대해 있고, 각 각을 죽인 장방형석주로서 돌 다듬은 솜씨가 세련되었다. 전체 높이는 약 3m, 둘레는 1.88m인데 상당 부분이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주아문>



● 온주아문

옛날 온양군 앞에 있던 아문인데, 관아는 없고 아문만 남아 있다. 조선 고종의 등극 후 흥선 대원군 섭정 시 국정을 쇄신함으로 국내의 각 군청 및 성벽 등을 중수 또는 신축하였다.

고종 8년(1871) 3월에 온양군의 관아 전부를 신축하게 되면서 이 문루도 건립하였다.

온주아문이란 명칭은 신라 문무왕 3년(663)에 군명을 온주라 한데서 유래한다.

하층 3간에 삼간을 달아 동헌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상층에는 누각을 설치하였는데, 좌측 남단 간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었다.

구조는 가공한 장대석으로 1단 축조한 기단위에 낮은 방형초석을 먼저 놓고 다시 주 형장 초석을 놓았다. 이 초석위에는 원형주를 세운 후 기단 면에서 3.27m 높이에 누각을 만들어 우물마루를 깔았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보수로 인하여 장마루가 깔려 있다. 누각 4면으로는 계자각을 세우고 난간하업을 올려서 돌란대를 받친 난간을 돌렸는데 하층 기둥 외부로 화려하게 초각을 한 낙양을 모두 부착하였다.

기둥 상부의 공포는 이익공 양식으로서 초익공을 창방과 직교되도록 주두와 함께 결구 시키고 그 위 주심부에 소형주두와 익공을 하나 더 놓아서 대량의 외단을 받치도록 하였으며, 건물 내부로는 보아지를 돌출시켜 대량 내단을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합각 부분에는 대량과 누각 측면의 중앙주 상단에 만곡된 충량을 걸고 우물천정을 가설하였다. 지붕은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고 건물 정면에 「온주아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 온양향교

온양향교는 읍내동 20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945평으로 건물은 대성전 19평, 내삼문 3평, 명륜당 20평, 동재 11평, 외삼문 5평, 수직사 10평, 부속창고 10평, 홍살문 및 변소 2평이다.



장서로는 공부자성적도 1질, 충북자수도회집 1권, 제천향교지 1권, 일송(심희수)문집 1권, 선재집(목당집-권중경저)1권, 강진원의병장약전 1권, 창엄선생만고역본 1권, 눌제강수양제유고 1권, 약제실기 1권, 동춘당(송준길)년보 1권, 삼옥헌홍여사효열록 1권, 예의 생활 1권, 석전홀기 1권, 기타 부책 16권 등이다.

① 문묘의 향례

대성전 중앙의 북쪽에 유종의 비조이신 공자님을 정위로 남향하고 안자와 자사를 서향으로 증자와 맹자를 동향으로 각각 그 위패를 봉안하고 중국의 2철과 우리나라의 18현을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위씩 봉안하여 매월 삭망에 분향하며 음력 2월과 8월 정일에 석전 의식을 행한다.

② 문묘배향

대성지성문선왕 (공 자)		기국술성공송씨 (자사)	
		연국복성공안씨 (안자)	
		성국종성공증씨 (증자)	
		추국아성공맹씨 (맹자)	
동	무 (한국측)	홍유후 설 충 (중국측)	낙국공 정 이
		문성공 안 유	도국공 주돈이
		문경공 김굉필	위 공 복 상
		문정공 조광조	여 공 단목사
		문순공 이 황	설 공 염 용

			문간공 성 혼				비 공 민 손
			문정공 송시열				
			문순공 박세채				
서	무	(한국측)	문창공 최치원	(중국측)	운	공	염 경
			문충공 정몽주				제 공 재 예
			문헌공 정여창				서 공 영 구
			문원공 이언적				오 공 언 언
			문성공 이 이				진 공 전손사
			문원공 김장생				예 공 정 호
			문정공 송준길				휘 공 주 희

이상의 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 성안말 산성

읍내3통 성안말에는 마을 뒤쪽으로 구릉을 에워싼 포곡식의 전형적인 평산성이다. 산성은 대체로 현재의 성안말의 입구에 해당하는 남쪽을 주 방향으로하여 동쪽, 북쪽, 서쪽의 능선을 에워싸면서 축조되었는데 동벽과 북벽은 완전하나 서벽의 일부 그리고 남벽은 성벽이 완전히 유실되어 그 통과 선마저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조사에 의하면 산성은 평산성으로 축조되었지만 다른 여타의 산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하였기 때문에 성벽의 높이가 수십 길이 되는 곳도 있다.

서벽은 대부분이 잘 남아 있지만 남쪽 일부를 완전히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능선의 중간쯤에 오르면 성벽이 완전히 눈에 들어오는데 성벽은 저변이 6m 상부의 폭이 2m 가량 되며 높이는 내고가 약 1.5m 외고는 2m 안팎이다. 그러나 성벽은 능선을 이용하여 축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높이는 이 보다 훨씬 높다. 이 곳에서 능선을 따라 약 50m 쯤 더 올라가면 경사를 이루던 능선이 평평해 지면서 평탄 대지를 이루는데 이곳은 현재 9m의 폭으로 성벽이 끊겨 있다. 지금도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성내와 구 온양읍으로 통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곳이 원래부터의 문지이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원래부터의 문지였다 하더라도 그 폭이 9m 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 여겨지는데 최근에 인위적으로 주변을 정리한 것이 금방 눈에 띈다. 이 곳을 지나면 성벽은 다시 경사를 이루며 과수원을 경작하느라 성내를 개간해서 그런지 내고는 그렇게 높지 않고 성벽의 통과선 만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외벽은 역시 마찬가지로 능선을 이용하여 축성한 관계로 그 높이가 실제로 축성한 높이 보다 훨씬 높은 수 십길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 경사진 능선을 따라 구릉의 정상에 오르면 성벽은 동쪽으로 꺾어지면서 북벽을 이루고 있는데 서벽과 북벽이 만나는 지점은 거의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채롭다. 이렇게 두 성벽이 직각을 이루면서 만나는 것은 성벽을 판측하여 축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연기군 전동면 읍내리에 있는 읍내리 산성의 북벽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북벽과 동벽이 만나고 있어 주목된 바 있다.

현재 북벽은 성의 안팎이 밭으로 경작됨으로 인해 훼손이 심하여 마치 밭둑처럼 약간의 높이만 남아 있어 그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북벽과 서벽이 만나는 부분만 약 7m

정도의 길이에 걸쳐 제법 원형을 유지 하고 있는 성벽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내고 2m 안팎 외고3-4m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부의 성폭은 2m 내외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50m쯤 가면 성벽은 다시 한번 직각으로 꺾어지면서 동쪽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은 전체적으로 오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꺾어진 북벽에는 양쪽 북벽을 이등변으로 하여 삼각형의 높은 태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태지는 현재 오각형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로 각각 16m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내의 주변보다 약 2m 정도 높게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이 태지의 성격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곳에 오르면 성의 전후좌우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성내 전체가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데에서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간의 변경이 있다는 치더라도 지금 있는 태지가 후대에 만들어 졌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이곳에는 이와 비슷한 태지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이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북벽은 대체로 내고 2.5m 외고 3m 안팎 성벽 상단 폭 2m를 유지하고 있어서 서쪽 북벽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북벽도 동벽과는 직각으로 만나는데 이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부분에는 현재 약 2m의 폭으로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소로가 나 있다. 이 소로가 원래부터 나 있던 성문인지 아니면 후대에 동해를 위해 만든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상태와 지형 등을 감안 해 볼 때 이것이 원래의 문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동벽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성내는 과수원 경작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고 있다. 성벽의 외고는 현재 6m 내외이며 내벽은 2m 내외로 남아 있다. 성의 기저 폭은 6m 정도이고 상부의 폭은 2m내외다. 동벽의 중간 쯤 되는 지점에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통로가 하나 나 있다. 4m 의 폭으로 성벽이 끊겨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후대에 성의 내외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뚫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이곳에는 원래부터 성문이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대에 성의 내외를 연결하기 위해 뚫어 놓은 통로도 애초부터 이곳에 성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통로를 만들었을 것이다. 한편이 문지 주변의 양쪽 성벽은 많이 훼손되어 있다. 성안 마을을 포함한 주변마을에서 필요한 흙을 채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성벽을 허물은 듯하다. 이곳에서 보면 황토 흙과 마사토의 층이 교대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성벽을 판축으로 축성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성토에 의해 축성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성토에 의해 축성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동 門址에서 남쪽으로 약 50m 정도 더 내려가서 동벽은 남벽과 연결된다. 그런데 동벽과 남벽이 연결되는 지점도 역시 직각으로 만나고 있다. 성벽이 유실 되어 알 수 없는 남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직각으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남벽은 현재 성안마을과 외부와의 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 남쪽의 소로를 가로 질러서 축성되었던 듯하다. 남쪽이 성의 주 방향인 만큼 지형적으로 볼 때 이 남쪽에는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주 통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성내의 지형이 북고남저형이라서 성내의 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 이곳에는 수구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곳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고 또 주변 일대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어서 그런지 성벽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현재로서는 그 원형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동벽과 연결되는 동쪽 부분 일부만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 보면 남벽은 동벽과 직각으로 연결되어 구릉의 능선을 타고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평지로 연결 되었던 듯하다. 현재 구릉의 능선에 축조되었던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성벽은 다른 성벽과 마찬가지로 안팎으로 높은 지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벽 중간 중간에 성돌로 보이는 큼직큼직한 돌들이 박혀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어쩌면 성벽은 일정구간은 성축을 하고 다시 흠으로 복토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서벽의 일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표조사 만으로는 이것을 단정 지을 수 없고 앞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기대할 뿐이다.

성벽이 얇으막한 구릉을 에워싸면서 축조되어 있는 까닭에 성내에는 곳곳에 넓은 태지가 마련되어 있다. 성내의 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룬 북고 남저형의 구릉인데다가 최근에는 성내 전체를 과수원으로 경작하느라 지형을 변경 시켜서 그런지 성내 전체가 건물지로 여겨질 만큼 도처에서 넓은 태지가 눈에 띈다. 특히 현재 민가가 자리잡고 있는 남벽 근처에서 북쪽으로 구릉을 중간쯤 오르다 보면 지름 10m 정도의 반원형 저수지가 나오는데 이 부근에 있는 계단상의 밭들이 건물지가 아닌가 추정된다. 서벽 근처의 밭 뚝에서는 실제로 50cm×80cm 크기의 초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밭둑에다 옮겨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 주민들의 말로는 이것 이외에는 초석으로 추정되는 많은 돌들이 민가의 마당 등지에 옮겨져 있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성내에는 꽤 많은 건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유물 또한 성내 도처에서 발견된다. 발견되는 유물은 와편과 도기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와편이 많았다. 와편으로는 숫기와와 암기와를 수습할 수 있었다. 수기와 1점은 동벽 중간쯤 해서 수습한 것으로 원래는 언강이 붙어 있었던 듯하나 현재는 떨어져 나가고 흔적만 남아 있다. 길이 20cm 두께 2.2cm에 현 지름 12.2cm인데 표면에는 황으로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암기와는 여기저기서 수습할 수 있었는데 특히 초석이 발견되었던 서벽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러 점이 수습된 만큼 시문된 문양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대체로 두께 2cm의 회청색 경질 와편이었는데 무문 어골문 사격문등 시문 방법이 다양하였다. 그중 하나는 다른 것과는 달리 특히 고운 태토에 붉은색 나는 경질 와편이었는데 배면에 시문한 무늬 또한 다른 것들과는 달리 원문과 사각문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즉 이 와편은 배면의 맨 위쪽에다 사각문을 교대로 한 줄씩 시문한듯한데 원문은 지름 4-5cm되는 큰원 원에다 다시 지름 1cm의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작은원 위에다 절표시를 덧그려 완성하였고 사각문은 4cm×3.5cm 크기의 사각형 안에다 사각형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4개 그려서 마치 사각형 안에다 X자 표시를 한 것처럼 하였다. 토기편은 회청색 경질 토기로 저부만이 2점 수습되었는데 봉분의 맨 밑에 격자문늪 시문되어 있다. 대형 옹편으로 추정된다.

● 주민의 마음

1. 구온양은 옛날 성터읍내 답지 않게 발전이 아주 없을 때 장항선 직선화 사업으로 온양 역사를 새로 만들어 구온양이 아니라 신온양으로 탈바꿈했으면 한다.

2. 온양시내 근동의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구역임으로 발전이 더욱 느리기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되 식수원에 저해가 되지 않는 시설은 완화 하여 구온양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아산시의 지명을 온양으로 변경할 것을 원한다. 왜? 온양 향교가 있는 곳에 아산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으며 아산 명칭은 아산 향교가 있는 데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더욱이 아산은 청일전쟁때 일본인이 승전기념으로 붙인 이름이므로 온양지명을 원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